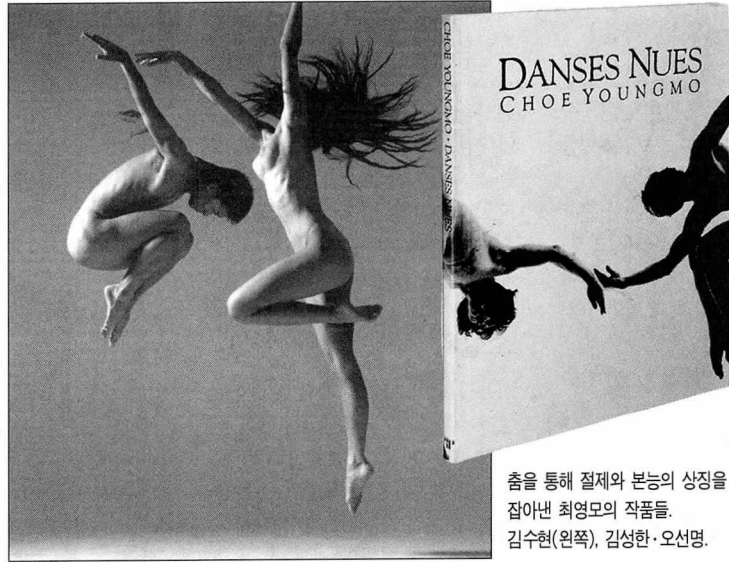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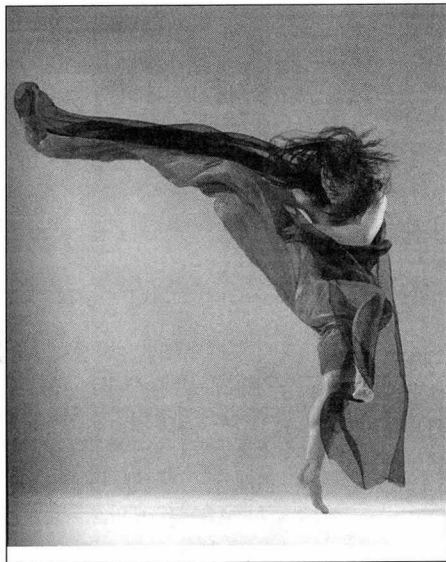


절제와 본능의 상징

최영모 《댄스 누드》



춤 통해 절제와 본능의 상징을 잡아낸 최영모의 작품들. 김수현(왼쪽), 김성한·오선명.

사진작가의 긴장감은 피사체를 거머잡는 시각에 존재한다. 소재를 용해하는 표현력이 예술적 형상화로 승화될 때 긴장감은 빛을 발한다.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할 때 작가의 긴장감은 더욱 팽창된다. 최영모(43)의 사진집 《댄스 누드》(1993, 일)는 찰나적 통찰력의 경지를 보여준다.

그의 소재는 춤에 있다. 춤추는 무용수에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춤판이 벌어진 무대에 올라선 그는 무용수와 함께 하나가 된다.

춤을 추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옷이다. 그러나 이 사진집에서 옷은 거추장스런 사슬일 뿐이다. 먼저 등장한 것은 반라의 무용수. 머리까지 삭발한 그녀의 몸

짓에서 허구적 관념의 틀을 깨려는 한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옥죄고 있던 사슬을 풀어던진 무용수는 살풀이를 하듯 빛의 음영 속에서 꿈틀거린다. 태초에 억압받는 이브가 있었다면 똑같은 굴레를 쓰고 있는 아담이 있었다. 비상을 꿈꾸는 아담은 군살 박힌 몸을 허공에 날려 도약을 꾀한다. 태초의 신비가 무너진 무대는 인간의 세상으로 탈바꿈한다.

태어난 뒤에 만남이 있고, 만남으로서 유희와 고통을 겪는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암중모색하는 그들의 육신은 더욱 꿈틀거린다. 혼자 또는 무리, 이성과 동성이 함께 이욕의 세상으로 돌진한다. 우주유희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신화는 그렇게 영멸하는 것이다.

흑백의 빛과 그 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나신의 움직임은 절제된 미의 상(像)을 동원한다. 마치 태고적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인간의 몸색이 아니려나. 원초적 본능은 숨길 수 없다. 춤을 통해 절제와 본능의 상징을 도출한 작가의 눈이 석고상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무용수의 육신을 닮아가고 있다.

그의 사진집 《김말애》(1994, 일)도 한국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김씨의 춤을 소재로 삼았다. 춤을 사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는 지금도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무용사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43호 / 1998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